

# “진정한 행복은 수행통한 인격 완성”

## ‘선원청규’ 편찬 주역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하안거 결제 맞아 참수행정신 강조



“행복은 대부분 잠깐의 가시적인 만족에 머물게 마련입니다. 수행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마음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불기 2555년 5월 16일 하안거 결제를 하루 앞두고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만난 선원장 의정 스님은 하안거를 맞아 모든 대중이 수행을 통해 올바른 마음의 길을 찾기를 당부했다.

“일반인들은 산중에 들어앉아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고 수행이 어려

운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수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수행방식은 앉아서도, 서서도, 걸어도 다닐 때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생활선입니다. 대변을 보면서 ‘이 뱃고’를 하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매진하고 싶은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은 제대로 된 수행을 위해선 반드시 좋은 선지식과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책을 보고 마스크를 통해 따라하는 수행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마음 길을 찾는 수억만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역시 최상의 지름길은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불교의 선사상이 대안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스님은 이번 하안거에서 스님들의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선원청규편찬위원장을 맡아 한국불교사상 처음으로 한국 불교 풍토에 맞는 수행 규율인 ‘선원청규’를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중국의 청규를 따라 방편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는 고 청규가 11가지 일본은 9가

지 청규가 있다.

스님은 “선원청규의 의미는 크게 뛰어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10년 정도 청규가 자리잡는 기간으로 보고 지금부터 참수행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 스님은...

양평 용문선원 선원장인 의정 스님은 1976년부터 인천 용화사 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그동안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했다.

2005년에는 조계종단 수행지침서인 <간화선> 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는 조계종 전국선원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양평 상원사에 용문선원을 복원해 개원하며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노덕현 기자

### “재가자도 안거 기간 수행”

#### 미항사 등 12곳 사찰, 재가안거 시범

청정승가를위해대중결사(의장 만초)는 부산·경남지역 12개 전법도량에서 5월 17일부터 90일동안 ‘재가안거 수행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초 스님은 “많은 재가신도들이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스승 밑에서 올바른 수행을 닦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사찰은 △거제 금강사 △구미 대문사 △대전 만불선원 △대전 용화사 △부산 흥법사 △부산 미타선원 △부산 능인선원 △부산 해원정사 △부산 대광명사 △부산 해광사 △울산 해남사 △해남 미항사 등 12곳이다.

‘선원청규’를 바탕으로 수행에 매진하는 일반 사찰과 달리 재가 안거는 ‘수행록’을 이용

해 수행을 점검한다. 안거 기간은 90일간으로 용상방 계시와 자자포살법회(매달 음력 15일, 30일)은 승려안거와 동일하다. 역량에 따라 기본수행과 선택수행이 진행된다.

기본수행으로는 삼귀의와 수행서원문 염송, 7보 수행이 실시되며 운영사찰 수행법 등에 따라 △108배 △108관음 염송 △108 미소 자각 △경전 7독 등이 선택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중결사는 재가자들이 생활로 돌아갈 수행풍토를 유지하기 위해 △중생을 위한 서원 세우기 △매일 수행하기 등의 수행청규를 제정했다.

해제식은 8월 14일 운영사찰 별로 실시되며 안거종도 수여된다. 이어나 기자

### 종교, 국가에 기대지마라

#### 길희성 교수, 사회통합위 세미나서 주장



“어느 종교도 국가권력 또는 정부의 지원이나 시혜에 기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문화재 수호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종교의 국가·정부간 원칙을 밝힌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규)가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와 사회통합-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

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종교계의 상생을 위한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 길희성 교수는 현대 종교의 성격에 대해 “이제 어느 종교도 지나간 시대에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없고 거기에 향수를 지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현대의 종교는 조선시대 유교나 고려시대 불교가 누렸던 것과 같은 영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종교는 이전보다 더 순수한 종교, 더 진정성을 지닌 신자들이 확보하는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 선학원 선봉사 환경 정비

조조대장경 1000년을 맞아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호각과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선학원 선봉사(주지 성수)는 대각국사비(보물 제251호)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각을 개축한다.

선봉사는 사찰 자연경관을 저해했던 임시목조건물과 콘테이너 박스를 대신할 방담, 선원, 요사채, 주지실은 신축하고, 기존의 산신각은 대각국사비각과 함께 개축한다.

이성연 기자

### 통도사 주지 선출 두고 내홍

#### 자승 스님, “불교위해 지혜롭게 해결” 당부

차기 주지선출을 두고 통도사가 총립 해제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5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명의로 “방장의 동이 없는 산중총회는 무효”라는 공문이 통도사와 말사 등에 발송된 가운데 통도사 종무소는 17일 ‘영축총림 통도사 중요현안 및 총립해제에 관한 건’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24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의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도사 종무소는 “2차례 임회와 소위원회에서 중의를 모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맞게했다”며 산중총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통도사는 방장 원명 스님의 추천을 받은 원산 스님과 총회의

대다수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배, 정우 스님이 선출 방법을 두고 맞서는 상황이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은 이날 자신이 지목한 원산 스님을 차기 후보로 하는 추천서를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각 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원산 영배, 정우 스님을 만나 “통도사 대중들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중과 불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해결방법을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민족문화수호단 창단 조계사(주지 토진)가 서산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을 위한 ‘(가칭)조계사 민족문화수호단’을 5월 17일 창단했다. 조계사는 로터스월드와 미안마 빈민 고아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5월 20일 나눔·실천 도량선포식을 가졌다.

### 문수 스님을 기리며

문수 스님 선양사업 준비위원회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함께 소신 공양 1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준비위는 스님의 3가지 유지를 선양하고, 생명평화와 정신을 계승, MB정권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5월 30일~ 6월 4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법회 및 부도탑 제막식, 생명평화 대화마당, 낙동당 지보사 순례 등을 추진한다.

다례 및 부도탑 제막식은 군위 지보사에서 5월 31일 진행되며 5월 30일~ 6월 3일까지는 1주기 추모제 및 생명평화 대화마당이 마련된다.

6월 11일에는 낙동강과 지보사 순례를 통해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 의미를 돌아본다.

박기범 기자

### 박구원 만평



생각을 깨우는 시간

한 권이면 충분하다

# 법화경

## 무엇이 부족합니까?

#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아 역편 / 신국판 / 양장정본 / 752쪽 / 28,000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퍼네』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멋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중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워터빌딩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